

가까운 미래를 점쳐보면?

학습 **내용**

- 01 자산가격의 상승이 주도하는 경기 회복은?
- 02 자산불평등 뿐만 아니라 소득 불평등도!
- 03 저출산의 시대는 언제까지?

• 2020년 한국 출산율의 하락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자산가격의 상승이 주도하는 경기 회복은?

1) 자산가격의 상승이 주도하는 경기 회복은?

자산가격의 상승이 주도하는 경기 회복은?





자산가격의 상승이 주도하는 경기 회복은?

필연적으로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될 전망

저축률(소득-소비)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한 이들은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월등히 더 많은 것이 현실임

자산가격의 상승이 주도하는 경기 회복은?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 구간별 가구 분포]

(단위:%, %p)

	는자산 억원)	_ 1미만	- 1~0 미만	0~1 미만	1~2 미만	2~3 미만	3~4 미만	4~5 미만	5~6 미만	6~7 미만	7~8 미만	8~9 미만	9~10 미만	10 이상	평균 (만원)	중앙값 (만원)
	2019년	0.2	2.8	29.1	17.8	13.3	9.3	6.4	4.7	3.7	2.4	1.9	1.5	6.8	35,281	20,050
가구 분포	2020년	0.3	3.1	28.8	17.4	12.7	9.3	6.7	4.8	3.4	2.7	2.1	1.6	7.2	36,287	20,218
	전년차 (비)	0.1	0.3	-0.3	-0.4	-0.7	-0.1	0.3	0.2	-0.3	0.3	0.1	0.1	0.4	2.9	0.8

전체가구의 62.3%가 3억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하며, 10억원 이상인 가구는 7.2%

자산가격의 상승이 주도하는 경기 회복은?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 구간별 가구 분포]

(단위: %, %p)

	순자산 (억원)	_ 1미만	- 1~0 미만	0~1 미만	1~2 미만	2~3 미만	3~4 미만	4~5 미만	5~6 미만	6~7 미만	7~8 미만	8~9 미만	9~10 미만	10 이상	평균 (만원)	중앙값 (만원)
	2019년															
가구 부포	2020년	0.3	3.1	28.8	17.4	12.7	9.3	6.7	4.8	3.4	2.7	2.1	1.6	7.2	36,287	20,218
	전년차 (비)	0.1	0.3	-0.3	-0.4	-0.7	-0.1	0.3	0.2	-0.3	0.3	0.1	0.1	0.4	2.9	0.8

- 2020년 3월 말 기준 순자산 보유액이 1억원 미만 가구 32.2%, 1억~2억 미만 가구 17.4%
 등의 순이며, 3억원 미만 가구가 전체 가구의 62.3%, 10억원 이상 7.2%를 차지함
 - 전년에 비해 2~3억 원 미만 보유가구의 비중은 0.7%P 하락하고, 7~8억원 미만과 10억 이상 보유한 가구의 비중이 각각 0.3%p, 0.4%p 상승함



누가 베팅했나?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

(단위: 만원,%)

연령별 순자산의 변화를 살펴보면 2030세대가 적극적인 베팅에 나선 것을 발견

		전체	39세 이하	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019년	35,281	21,524	7,796	23,723	36,278	40,024	36,804
평균	2020년	36,287	22,733	7,241	25,385	37,359	40,987	37,422
	증감률	2.9	5.6	-7.1	7.0	3.0	2.4	1.7

- **→ 수출대기업에 종사하거나 상대적으로 부유한 부모를 둔 2030이 승자가 된 셈**
- **▶ 반면 그간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섰던 5060세대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누가 베팅했나?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

(단위: 만 원,%)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가구주가 50대인 가구에서 4억 987만 원, 자영업자인 가구에서 4억 4,560만 원으로 가장 많음

		전체	39세 이하	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019년	35,281	21,524	7,796	23,723	36,278	40,024	36,804
평균	2020년	36,287	22,733	7,241	25,385	37,359	40,987	37,422
	증감률	2.9	5.6	-7.1	7.0	3.0	2.4	1.7

→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 보유액은 50대 가구가 4억 987만원으로 가장 많고, 전년대비 증가율은 39세 이하 가구(2억 2,733만 원)가 5.6%로 가장 높음



1) 자산불평등 뿐만 아니라 소득 불평등도!



[처분가능소득 구간별 가구 분포]

(단위:%, %p)

	분가능 소득 선만원)	_ 1미만	- 1~0 미만	0~1 미만	1~2 미만	2~3 미만	3~4 미만	4~5 미만	5~6 미만	6~7 미만	7~8 미만	8~9 미만	9~10 미만	10 이상	평균 (만원)	중앙값 (만원)
	2018년	0.1	0.5	10.6	14.9	13.6	12.6	11.0	8.9	6.6	5.6	3.8	3.0	8.7	4,729	3,808
	2019년	0.2	0.4	9.6	15.2	13.6	11.9	11.3	9.0	7.4	5.8	4.1	2.8	8.9	4,818	3,927
분포	전년차 (비)	0.1	-0.1	-1.0	0.3	0.0	-0.8	0.2	0.0	0.8	0.2	0.3	-0.2	0.1	1.9	3.1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이 출현하면서 소득 불평등도 크게 심화되었음



[처분가능소득 구간별 가구 분포]

(단위:%, %p)

_	분가능 소득 선만원)	_ 1미만	- 1~0 미만	0~1 미만	1~2 미만	2~3 미만	3~4 미만	4~5 미만	5~6 미만	6~7 미만	7~8 미만	8~9 미만	9~10 미만	10 이상	평균 (만원)	중앙값 (만원)
	2018년	0.1	0.5	10.6	14.9	13.6	12.6	11.0	8.9	6.6	5.6	3.8	3.0	8.7	4,729	3,808
	2019년	0.2	0.4	9.6	15.2	13.6	11.9	11.3	9.0	7.4	5.8	4.1	2.8	8.9	4,818	3,927
분포	전년차 (비)	0.1	-0.1	-1.0	0.3	0.0	-0.8	0.2	0.0	8.0	0.2	0.3	-0.2	0.1	1.9	3.1

수출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은 급증하며 1억 이상의 연 소득을 올리는 가구는 기존 8.7%에서 8.9%로 늘어남



[처분가능소득 구간별 가구 분포]

(단위:%, %p)

	분가능 소득 선만원)	_ 1미만	- 1~0 미만	0~1 미만	1~2 미만	2~3 미만	3~4 미만	4~5 미만	5~6 미만	6~7 미만	7~8 미만	8~9 미만	9~10 미만	10 이상	평균 (만원)	중앙값 (만원)
	2018년	0.1	0.5	10.6	14.9	13.6	12.6	11.0	8.9	6.6	5.6	3.8	3.0	8.7	4,729	3,808
	2019년	0.2	0.4	9.6	15.2	13.6	11.9	11.3	9.0	7.4	5.8	4.1	2.8	8.9	4,818	3,927
분포	전년차 (비)	0.1	-0.1	-1.0	0.3	0.0	-0.8	0.2	0.0	8.0	0.2	0.3	-0.2	0.1	1.9	3.1

-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전체가구의 50.9%가 4천만 원 미만을 기록했는데, 비중은 전년에 비하여 1.5%p 하락
- 1억원 이상인 가구는 8.9%로 0.2%p 상승



[처분가능소득 구간별 가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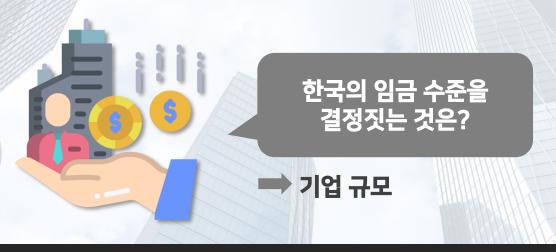
(단위:%, %p)

	분가능 소득 선만원)	_ 1미만	- 1~0 미만	0~1 미만	1~2 미만	2~3 미만	3~4 미만	4~5 미만	5~6 미만	6~7 미만	7~8 미만	8~9 미만	9~10 미만	10 이상	평균 (만원)	중앙값 (만원)
	2018년	0.1	0.5	10.6	14.9	13.6	12.6	11.0	8.9	6.6	5.6	3.8	3.0	8.7	4,729	3,808
	2019년	0.2	0.4	9.6	15.2	13.6	11.9	11.3	9.0	7.4	5.8	4.1	2.8	8.9	4,818	3,927
분포	전년차 (비)	0.1	-0.1	-1.0	0.3	0.0	-0.8	0.2	0.0	8.0	0.2	0.3	-0.2	0.1	1.9	3.1

 2019년 가구의 처분가능 소득은 1~2천만 원 미만이 15.2%, 2~3천만 원 미만이 13.6%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음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 확대되는 추세



수출 대기업과 내수 기업의 임금 격차가 날로 확대되는 중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 확대되는 추세

[사업체 규모별 임금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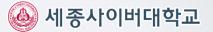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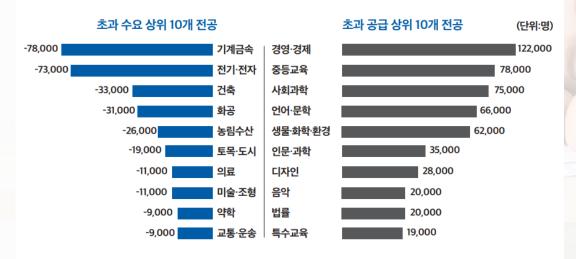
[대학별 졸업생 취업률 비교]





전공별 취업격차도 확대되는 추세

향후 10년간 대학 전공별 인력 수급 전망



공학계열 전공자에 대한 수요는 넘치지만, 경영/경제와 중등교육 등 인문/사회계열 전공자에 대한 수요는 공급대비 부족한 상황

기계금속과 전기/전자 등

출처: 고용노동부, <2014~2024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



1) 저출산의 시대는 언제까지?

저출산의 시대는 언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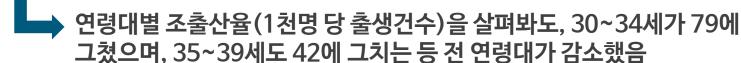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2010~2020p]

(단위: 가임 여자 1명 당 명, 해당연령 여자친구 1천 명 당 명,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p	증감	증감률
합	계출산율	1.23	1.24	1.30	1.19	1.21	1.24	1.17	1.05	0.98	0.98	0.87	-0.08	-8.8
	15~19세	1.8	1.8	1.8	1.7	1.6	1.4	1.3	1.0	0.9	0.8	0.7	-0.1	-13.0
	20~24세	16.5	16.4	1.60	14.0	13.1	12.5	11.5	9.6	8.2	7.1	6.1	-1.0	-14.0
연령	25~29세	79.7	78.4	77.4	65.9	63.4	63.1	56.4	47.9	41.0	35.7	30.6	-5.1	-14.0
별출	30~34세	112.4	114.4	121.9	111.4	113.8	116.7	110.1	97.7	91.4	86.2	79.1	-7.2	-8.0
산율	35~39세	32.6	35.4	39.0	39.5	43.2	48.3	48.7	47.2	46.1	45.0	42.3	-2.7	-6.0
	40~44세	4.1	4.6	4.9	4.8	5.2	5.6	5.9	6.0	6.4	7.0	7.1	0.1	1.0
	45~49세	0.2	0.2	0.2	0.1	0.1	0.2	0.2	0.2	0.2	0.2	0.2	0.0	0.0

실업사태와 대외 활동의 위축 속에 결혼 및 출산 건수가 급격히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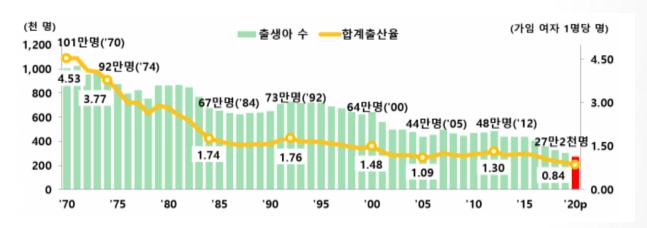


저출산의 시대는 언제까지?



출생아수 27만 2천 4백 명으로 전년대비 3만 3백 명(-10.0%) 감소

-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년대비 0.08명 감소
- 조(粗)출생률(인구 1천 명당 출생아수)은 5.3명, 전년보다 0.6명 감소





결혼연령이 늦어졌기 때문일까?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2010~2020p]

(단위: 가임 여자 1명 당명, 해당연령 여자친구 1천명당명,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p	증감	증감률
합기	벢 출 산율	1.23	1.24	1.30	1.19	1,21	1.24	1.17	1.05	0.98	0.98	0.87	-0.08	-8.8
	15~19세	1.8	1.8	1.8	1.7	1.6	1.4	1.3	1.0	0.9	0.8	0.7	-0.1	-13.0
	20~24세	16.5	16.4	1.60	14.0	13.1	12.5	11.5	9.6	8.2	7.1	6.1	-1.0	-14.0
연령	25~29세	79.7	78.4	77.4	65.9	63.4	63.1	56.4	47.9	41.0	35.7	30.6	-5.1	-14.0
별 출	30~34세	112.4	114.4	121.9	111.4	113.8	116.7	110.1	97.7	91.4	86.2	79.1	-7.2	-8.0
산율	35~39세	32.6	35.4	39.0	39.5	43.2	48.3	48.7	47.2	46.1	45.0	42.3	-2.7	-6.0
	40~44세	4.1	4.6	4.9	4.8	5.2	5.6	5.9	6.0	6.4	7.0	7.1	0.1	1.0
	45~49세	0.2	0.2	0.2	0.1	0.1	0.2	0.2	0.2	0.2	0.2	0.2	0.0	0.0

산모 연령대별 조출산율을 살펴보면, 20~24세 기준 2010년에는 16.5였던 것이 2020년 6.1로 감소해 20대 출산이 급감한 것은 분명한 사실



결혼연령이 늦어졌기 때문일까?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2010~2020p]

(단위: 가임 여자 1명 당명, 해당연령 여자친구 1천명당명,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p	증감	증감률
합기	벢 출 산율	1.23	1.24	1.30	1.19	1,21	1.24	1.17	1.05	0.98	0.98	0.87	-0.08	-8.8
	15~19세	1.8	1.8	1.8	1.7	1.6	1.4	1.3	1.0	0.9	0.8	0.7	-0.1	-13.0
	20~24세	16.5	16.4	1.60	14.0	13.1	12.5	11.5	9.6	8.2	7.1	6.1	-1.0	-14.0
연령	25~29세	79.7	78.4	77.4	65.9	63.4	63.1	56.4	47.9	41.0	35.7	30.6	-5.1	-14.0
별 출	30~34세	112,4	114.4	121.9	111.4	113.8	116.7	110.1	97.7	91.4	86,2	79.1	-7.2	-8.0
산율	35~39세	32.6	35.4	39.0	39.5	43.2	48.3	48.7	47.2	46.1	45.0	42.3	-2.7	-6.0
	40~44세	4.1	4.6	4.9	4.8	5.2	5.6	5.9	6.0	6.4	7.0	7.1	0.1	1.0
	45~49세	0.2	0.2	0.2	0.1	0.1	0.2	0.2	0.2	0.2	0.2	0.2	0.0	0.0

같은 기간 30~34세 조출산율도 112.4에서 86.2로 감소했음



결혼연령이 늦어졌기 때문일까?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2010~2020p]

(단위: 가임 여자 1명 당명, 해당연령 여자친구 1천명당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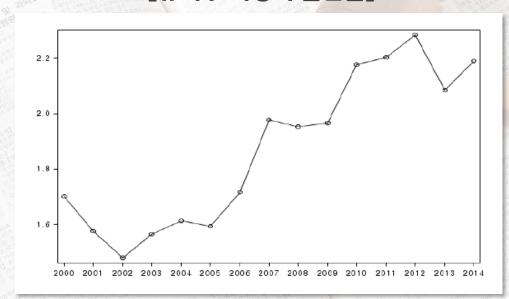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p	증감	증감률
합기	벢 출 산율	1.23	1.24	1.30	1.19	1.21	1.24	1.17	1.05	0.98	0.98	0.87	-0.08	-8.8
	15~19세	1.8	1.8	1.8	1.7	1.6	1.4	1.3	1.0	0.9	0.8	0.7	-0.1	-13.0
	20~24세	16.5	16.4	1.60	14.0	13.1	12.5	11.5	9.6	8.2	7.1	6.1	-1.0	-14.0
연령	25~29세	79.7	78.4	77.4	65.9	63.4	63.1	56.4	47.9	41.0	35.7	30.6	-5.1	-14.0
별 출	30~34세	112.4	114.4	121.9	111.4	113.8	116.7	110.1	97.7	91.4	86.2	79.1	-7.2	-8.0
산율	35~39세	32,6	35.4	39.0	39.5	43.2	48.3	48.7	47.2	46.1	45.0	42.3	-2.7	-6.0
	40~44세	4.1	4.6	4.9	4.8	5.2	5.6	5.9	6.0	6.4	7.0	7.1	0.1	1.0
	45~49세	0.2	0.2	0.2	0.1	0.1	0.2	0.2	0.2	0.2	0.2	0.2	0.0	0.0

35~39세의 조출산율은 32.6에서 45.0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음



문제는 결혼 그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닐까?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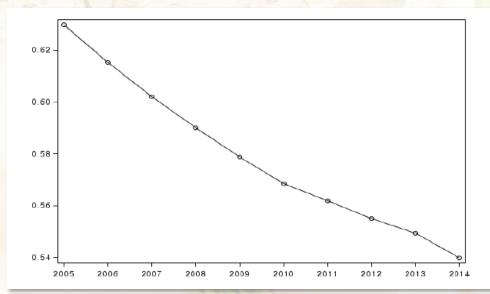
30대 여성의 조출산율 상승에서 보듯, 저출산 문제에 대한 희망이 없는 아님

- 실재로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은 서서히 반등하는 중
- 그렇다면 왜 출산율이 떨어질까?



결혼 자체를 하지 않으면 방법이 있나?

[20~49세 여성의 '유배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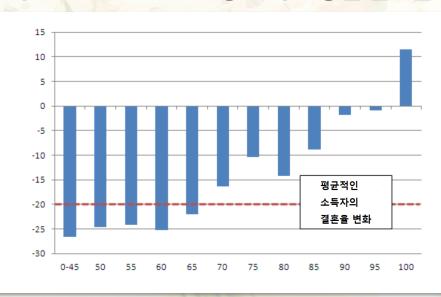
결국 한국 저출산의 핵심 원인은 결혼율의 하락에 있음

> 결혼율이 줄어드는 이유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임



경제적 능력이 결혼율을 좌우하는 세상

[미국의 1971~2011년 중 소득 계층별 결혼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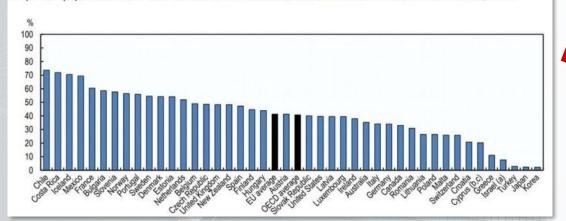
사회의 양극화,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등의 영향으로 결혼율 자체가 모두 하락 하는 중



결혼율이 하락해도 출산율 회복되는 나라는?

Chart SF2.4.A.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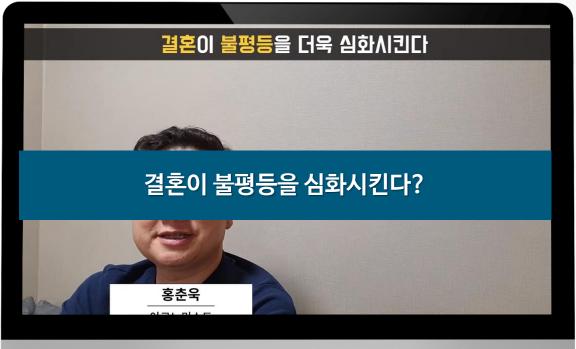
Proportion (%) of all births where the mother's marital status at the time of birth is other than married, 2018



결국 서구 선진국은 결혼율 자체는 줄더라도 출산율은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

한국이나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비혼 출산 자체를 기피하기에 출산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이게 됨





출처: https://youtu.be/yK1FpBaxBQU

정리 하기

2020년 한국 출산율이 급락한 원인은?

- ✓ 초혼연령의 연장
- ✓ 코로나 불황에 따른 실업난
- √ 비혼 출산 기피 현상